

• IR/PR •

NHN, “일본네티즌 키워 엔화 벌겠다”



▲ 이해진 대표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포털 업체 엔에이치엔(NHN)의 이해진(36) 사장은 지난해 매출 740억원, 순이익(추정) 2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배, 7배가 넘는 실적을 냈음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방심하면 1년만에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아주 쉬운 사업이기 때문이지요.”



▲ 김범수 대표

이 사장은 그러나 “자본력에 의지해 이룬 게 아니라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벤처경기 침체 속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뿌

듯함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엔에이치엔은 지난해 10월 500대 1이 넘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코스닥 입성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주주에 대한 책임도 커졌고, 수백명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고 말한다. 외부 주주 지분이 많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이 사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사장(7.8%)과 공동대표로 있는 김범수(37) 사장(2.4%)의 지분을 합쳐야 가까스로 10%를 넘는다.

결국 경영 성과로 주주들의 믿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장의 결론이다. 엔에이치엔은 사업의 중심축인 광고와 게임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올해 매출 목표를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잡는 등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기로 했다. 순이익도 지난해의 2배로 늘려 잡았다. 엔에이치엔은 이를 위해 올해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또 네이버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사업의 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일본어 웹페이지를 우리말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으로 1997년 삼성에스디에스 사내 벤처로 네이버를 만든 이 사장은 삼성에스디에스 동기이던 김범수 사장이 이끄는 한게임과 합쳐 2000년 6월 엔에이치엔을 출범시켰다.

닉스테크, PC보안제품 홍콩에 수출

PC보안솔루션 업체인 닉스테크(대표 박동훈)가 13일 홍콩에 자사 PC보안제품인 ‘SafePC’ 1200카피(클라이언트 기준, 서버의 경우 3대)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조인트벤처인 닉스테크 홍콩(NICSTECH HK)이 홍콩대학교 및 홍콩 제조업체 2곳에 ‘SafePC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납품하게 된 것이다. ‘SafePC’는 실시간 해킹탐 감지 기능, 파일암호화 기능, 외부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접속 차단 등 내외부자에 의한 주요정보유출이나 시스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PC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닉스테크는 이번 주문이 초기물량이어서 금액은 적지만 토종 PC보안 제품이 처음으로 홍콩을 진출했고 현재 닉스테크홍콩 외에 중국, 대만 지역의 유통채널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몇 군데 신규 매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대만 조인트벤처 설립 검토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대만에 조인트벤처 설립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 조인트벤처가 설립될 경우 그동안 대만 게임업체 감마니아를 통해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리니지’ 대만 판권이 조인트벤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씨소프트와 감마니아가 체결한 ‘리니지’ 대만 서비스 계약이 올해 말 완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경우 현재 감마니아로부터 매출의 25% 정도를 리닝로열티로 받는 것과 달리 대만에서 직접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인트벤처 설립이 가시화되면 대만에서 ‘리니지’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7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대만 감마니아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